

# 해양학자의 환경일기 ‘서른네 번째 기록-2024 PICES 연례 미팅을 다녀와서’

## 이타적 유전자

윤승태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조교수



하와이 바다.

뉴시스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PICES (North Pacific Science Organization)는 1992년 설립된 정부간 과학 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태평양에 위치한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PICES의 설립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위 30도 북쪽에 위치한 해양에 관한 연구를 촉진(Promote)하고 조직화(Coordinate)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양 환경, 기상 현상, 기후변화, 생물 자원 및 생태계, 그리고 인간 활동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증진(Advance)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 이슈들에 대한 과학적 정보 수집 및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 컨벤션 센터에서 2024 PICES 연례 회의가 개최됐다. 올

해 PICES 연례 회의의 주제는 ‘PICES의 미래: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이었다. 필자는 PICES의 자문 패널(Advisory Panel) 중 하나인 ‘AP-ECOP’의 멤버이자 ‘워킹그룹 52(WG 52): 데이터’의 공동 의장 역할을 수행 중이라 올해 연례 회의에는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필자의 PICES 연례 회의 일정은 일요일에 개최된 TCODE 비즈니스 미팅으로

시작됐다. TCODE(Technical Committee on Data Exchange)는 ‘워킹그룹 52: 데이터’의 상위 조직으로 PICES 연구자 간 혹은 정부 간의 효과적인 자료 교환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위원회이다. 이번 TCODE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PICES 내 기존 자료 정책을 수정 보완했고, 빅데이터 시대 해양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재 시류를 반영해 PODA(PICES New

Data Award)라는 상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뒤인 화요일에는 AP-ECOP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다. AP-ECOP은 PICES 내 ECOP(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s: 젊은 해양과학자)의 역할 확대 방안, ECOP과 시니어급 연구자 간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2021년 조직된 그룹이다. 유엔(UN)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UN Ocean Decade)으로 지정하고 해양학 분야에서 ECOP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AP-ECOP도 UN 해양과학 10년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AP-ECOP 멤버로 활동 중이다.

올해 AP-ECOP 비즈니스 미팅에서 중요한 이슈는 PICES 내 ECOP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었다. 올해 PICES 연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40%가 ECOP이었지만 세션 공동 컨버너 혹은 초청 연사 역할을 수행하는 ECOP은 전체 ECOP 인원의 5%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PICES에 ECOP은 많이 참석하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수행 중인 ECOP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미팅에서는 ECOP 주도의 세션 개발, 시니어 급 연구자에게 ECOP과의 공동 세션 개발을 권고하는 등의 시도를 내년 연례 회의부터 추진해보기로 의결했다.

AP-ECOP 비즈니스 미팅 이후에는 정부 대표단끼리 모여 식사하는 자리도 가지고 해양 물리 관련 학술 발표를 들으며 연례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국제 학술 행사에 참여한 것은 2022년 PICES 연례 회의(부산 개최) 참석 이후로 두 번째였는데 미팅 경험이 쌓이고 연구자들과의 친분도 쌓이보니 ‘AP-ECOP’, ‘워킹그룹 52: 데이터’ 활동들에 관한 흥미와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PICES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칼럼을 받아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PICES 연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연탄없는 광주를 꿈꾸며

기고

박필순  
광주시의원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어느 시인은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가까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때는 연탄이 대한민국의 국민연료였다. 연탄은 고단했던 근대화 과정에서 추운 겨울 온가족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따듯함의 상징이었다. 나무나 장작에 비해 편리하고 경제적이었던 연탄은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연탄이 가진 문제점이 더 부각된다. 연탄은 고농도의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다. 또한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 건강에도 해롭다. 이제 연탄은 번영의 상징이 아닌,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1980년대 1년에 연탄 1억5000만 장을 공급할 만큼 호황을 누리던 남산연탄의 폐업은, 광주의 연탄시대 종말을 알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폐업이 아닌,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는 이제 연탄 의존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탄은행 ‘2023 전국연탄사용가구조사’에 따르면, 연탄을 사용하는 광주시민은 1096명이며 이 중 42%인 463명은 수급·차상위가구다. 나머지 57%는 독거노인이나 장애가정 등 소외가구로 모두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어 연탄 사용 위험성에 더욱 노출돼 있다.

연탄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연탄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

너지 전환이 절실하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연탄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연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취약계층 지원이 그 시작점일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 정의 실현과 함께 가야 한다.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 난방이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 환경 개선과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광주는 이미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 광주시가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총 712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연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탄값을 지원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일 뿐이다.

‘연탄 없는 도시’는 단순히 연탄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난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가 연탄 없는 도시로 나아가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정의로운 도시, 광주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광주가 진정한 기후 선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연탄 없는 도시 광주,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시민께 선물하자.

# 보약·홍삼은

##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